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평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1. 학교폭력 문제에 무능했던 우리 사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물론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질 때면 어김없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대책은 그것을 발표한 교육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대책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반복되는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은 근절이 되지 않고 더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무능력은 정부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학교폭력과 날마다 접하며 그 문제의 일차적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이 문제에 대응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무능력은 교육학계도 마찬가지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의 안전의 심각하게 위협하고 학교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대부분 연구자들의 관심 밖이었다. 그나마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할 뿐 정부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무능력의 원인, 응보적 정의 패러다임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이렇게도 총체적으로 무능했던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이 ‘응보적 정의’(국가 독점적 사법)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응보적 정의(국가 독점적 사법)는 범죄가 발생하면 정의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 국가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엄한 벌을 주면 줄수록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국가 독점적 사법은 사적 보복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과학적인 형벌 확립 등의 공헌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벌을 받지만 진정한 반성이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한 벌을 주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도 제대로 맞지가 않았다.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학교와 정부의 대응은 근대 국가가 범죄에 대응해온 패러다임의

축소판이었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생활지도부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만 가해자는 그 벌을 받으면서 회개나 반성을 하지는커녕 자신에게 벌을 준 학교를 원망하고 자신이 벌을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삶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교폭력이 더 음성화되고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이러한 근대 국가 독점적 사법이 가진 한계에 대한 고민은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공동체 사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와 일탈은 마을 공동체 회의를 통해 해결을 했고, 대부분의 해결책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최대한 보상함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그 공동체 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법은 그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도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응보적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회개와 아울러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을 통해 관계의 회복까지 이르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개념을 메노나이트 교단을 비롯한 재침례파 평화주의 전통에서 잘 발전시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침례파 전통의 회복적 정의 개념과 전통사회가 가졌던 공동체 사법 개념을 현대 국가 독점적 사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실천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실천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이 확대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부터 모든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족회합 프로그램(Family Group Conference)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4.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한국에서는 한국아나뫼티스트 센터를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회복적 정의 개념을 소개해 왔으며, 최근에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을 세워 사법부와 학교현장에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가해자 피해자 대화모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비폭력평화물질 등 평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서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독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회복적 정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개념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울러 교사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최근 2-3년 동안 좋은교사운동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열매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실천 방안” 논문이 갖는 의의와 한계

김세광, 박소영 교수님의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실천 방안”은 우선 우리 교육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인 학교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문제를 증상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과 이론으로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살롬을 위한 교육’과 재침례파 전통에서 발전시켜온 ‘회복적 정의’를 가져오고,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도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폭력의 보다 근본 뿌리인 인간의 죄성과 영적 차원의 문제까지 다루었으면 좋았겠지만¹⁾, 이 논문의 목적이 이론적 분석이 아닌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근거로서는 ‘살롬을 위한 교육’과 ‘회복적 정의’가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실제적인 대안에 대한 소개와 그러한 대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아주 최근의 흐름이긴 하지만 회복적 정의와 이에 근거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은 공교육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무능력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퍼져가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할 때 향후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철학과 실천방안들이 일반 사회 가운데 공유되고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사회 변혁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확산의 흐름 가운데서 회복적 정의 속에 담긴 성경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더 성경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당연히 이에 근거한 개별적인 실천방안들에 대한 성경적인 비판과 성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학교폭력 문제와 회복적 정의 운동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육이 주목하고 기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신학적, 영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는 최근 새물결 플러스가 번역 출판한 <학교폭력, 그 영적 위기와 극복>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